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6면)

어르신 공공시설 접근성을 위한 ‘송파 동행버스’를 제안합니다



송파구의회 박지선 의원

장지동, 위례동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송파 동행버스’ 시범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지역 인근에서 장지동주민센터나 문정노인종합복지관까지 도보로 30분 이상 걸리는 곳이 있어 어르신들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장지동의 65세 이상 인구는 6,101명으로 전체 주민의 19.9%를 차지하며, 송파구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성동구와 노원구, 서초구 등은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장지역과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요양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을 연결하는 시범노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이동 수요를 조사하고 기존 버스노선과의 중복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다른 교통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거리의 제약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